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NEWS LETTER

July of 2021 Vol.42

소식지

의과대학

발행인 체희동 편집인 도경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TEL 02-3010-4207~19 Fax 02-3010-4240 Homepage <https://medulsan.ac.kr> 소식지 홈페이지 <https://medulsan.ac.kr/eletter>



02 [Interview] 우리 의대 새 학기 교수 11명, 부교수 15명, 조교수 11명 임용 07 [특집기사] 우리 의대 입시 소개 09 [우수연구] 전 세계 최초 청소년 가열담배 유병률 보고
11 [교과탐방] 특성화 선택실습 과정 13 [학생코너] 코로나 시대의 변화한 취미생활 16 [합격수기] 책을 읽으며 의사의 꿈을 찾다 19 [합격수기]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21 [합격수기] 가장 어려웠던 과목부터 슬럼프 극복방법까지 23 [의대소식] 신임 승재관 의무부총장 취임 23 [의대소식] 우리 의대 교수 10명 8월 31일 정년 24 [건
강칼럼] 여름철 건강한 눈 관리 방법은? 27 [의대소식] 우리 의대, '소통과 협업 중시' 자기주도 교육과정 준비 중 27 [의대소식] 우리 의대 2학기 대면 수업 예정

우리 의대 새 학기 교수 11명, 부교수 15명, 조교수 11명 임용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도 신임교수(부교수, 조교수) 5명에 대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우리 의대는 2021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수 11명, 부교수 15명, 조교수 11명을 임용하였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교원은 서울아산병원 29명, 울산대학교병원 4명, 강릉아산병원 4명 등 총 37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교원들은 신규임용 소감을 통하여 우리 의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교수(부교수, 조교수)들의 소감 및 우리 의대 발전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박정열 교수

(산부인과학교실, 서울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임상가, 교육자, 연구자로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감회가 깊다. 이러한 감회가 깊은 만큼 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책임감도 무거워졌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연구 목표는 부인암 치료 신약 개발과 인공자궁 개발이다. 당장은 불가능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이러한 꿈에 가까워져 있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 환자들에게는 고마움의 대상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여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시 기본 철학이 있다면?

환자분들이 충분히 대접받고 치료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이 의사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진료 철학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함께 치료를 결정하고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Q. 코로나19속에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이 있다면?

학생들과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가르치고,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다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참 좋았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대의 현재의 모습은 매우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potential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연구, 진료에 있어서 교수 개개인의 노력과 혼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모든 면에서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해 있어야 하는 부분이 다소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임용이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노하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잘 잡으시기를 바란다.



이훈 부교수
(안과학교실, 서울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전임 부교수로 발령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감사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아산병원 안과 교수님들이 쌓아 놓으신 훌륭한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줄기세포연구와 인공각막 및 자기장 시스템을 이용한 각막이식 연구를 통해 시력저하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임상 연구를 꾸준히 하고 싶다. 모든 환자들에게 눈이 편안해졌다는 말, 이제는 앞이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게 안과 의사로서 최고의 칭찬이기 때문이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시 기본 철학이 있다면?

환자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의사와 환자사이에 서로 묻고 배우는 환경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 및 공유가 때로 기회가 되어 환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치료를 위한 의사 결정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Q. 코로나19속에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이 있다면?

COVID-19로 인한 New-normal 시대의 도래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 및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질 좋은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첫번째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져야 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유튜브 및 영상제작을 통해 의료인(의사 및 의과대학 학생)과 비의료인(환자 및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 2020년 6월 11일 ‘이훈과 함께하는 서울아산병원 안과’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유튜브 채널 내 댓글 및 답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며, 로지텍카메라 및 새로운 프로그램(로지텍캡쳐 및 곰캠)을 이용한 질 좋은 영상 제작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쌓아 놓으신 아산병원의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의과대학도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 및 교육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어 발전해 나간다면 글로벌의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의과대학과 아산병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 분야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교수 임용 TIP(노하우)?

각자 현재 위치에서 꿈을 좇아 최선을 다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임상도 중요하지만 연구 분야도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들여다보는 것 이 필요할 것 같다.



장준영 부교수
(신경과학교실, 서울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전임 교수수가 되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울산의대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듦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임상 교수 때와는 달리 환자 진료 및 연구 외에 학생 교육에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듈다.

학생들에게는 의학 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들이 어려운 본과 과정을 보내면서 겪는 고민에 대해 상담해 주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을 왜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나,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며 지내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많이 듦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좀 더 즐겁게 현재를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헬스장에서 런닝 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난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다음날 일도 연

구도 더 잘 되고 밥도 더 맛있다.

15분 남짓 되는 거리를 몽촌토성을 따라 걸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신양심이 그 닥 깊지는 않지만 우연한 계기로 인해 시행한 끝주 기도가 하루의 시작과 맷음을 경건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각자가 가진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해 보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시 기본 철학이 있다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환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진료에 임하게 된다.

현실 의학의 한계, 개인 능력의 한계로 여러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든다.

Q. 코로나19속에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이 있다면?

대면 수업의 비중이 줄고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주입식으로 강의를 통해 얻는 지식을 오래 가지 않는다. 시험을 위해 책으로 외웠던 지식들은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머리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지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체감하고, 스스로 궁금해서 찾아보고,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잘 모르고 답답한 부분에 대해 능동적으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 오래간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로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길을 잊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잘 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므로 COVID-19에 대한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다면?

대학교 1학년때 형과 함께 처음으로 간 해외 여행지가 싱가폴이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모습, 치안이 잘 확립되어 있어 늦은 밤에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임상 교수로 근무하면서 병원 실습 나온 학생들을 만나보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가 많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증례 토론 시간에 발표 준비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학창 시절의 제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울산의대를 졸업한 전 공의들을 보면 진료와 연구에서 뛰어난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Q. 우리 의대가 글로벌의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학생들의 다양한 연구 참여 기회와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영어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졸업 이후 임상의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열어 두고 이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겠다.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임용을 바라고 오랜 기간 기다렸던 상황은 아니라 크게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노하우)

각자 다들 생각하는 목표가 다양할 것이

다.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자 희망하는 후배들은 내가 왜 교수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권고하고 싶다. 교수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꽤 바쁘고 성가시고 피곤하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꼭 교수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기를 권고하고 싶다. 지금 당장 내가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천재적인 영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끈기를 갖고 일관성 있게 한 분야를 꾸준히 파고 들 수 있는 집요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의료인들과 조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Q. 기타 하고 싶은 얘기

의과대학생 시절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설렘과 도전, 용기, 열정이 충만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주변 동기들과 함께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울산 의대 생이 되기를 바란다.



권혜미 조교수
(마취통증의학교실, 서울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전공의 졸업 후 펠로우 트레이닝과정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감격하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둉는다.

더욱이 이번에 신임교원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어 더욱이 감격스럽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배움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교수님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또한, 예전 의과대학 학생 시절 훌륭하신 의대 교수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로서의 입장이 되니 새삼 많은 책임감도 느껴진다.

이전의 교수님들이 보여주셨던 열정과 제자에 대한 애착을 앞으로 제가 지도하고 멘토가 되어줄 학생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원이 되고자 다짐한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제가 현재 진료하고 있는 분야인 간이식과 신장이식 마취 영역에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이를 임상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분야와 마취 영역과의 접목을 통해 임상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
더불어 교육자로써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의대생, 전공의 및 전문의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활동의 제약이 있지만 스쿠버다이빙을 추천해주고 싶다. 깊은 바다 속에 호흡에만 집중하며, 유영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바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시 기본 철학이 있다면?
내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처치나 치료에 대해 결정을 할 때 나의 가족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를 고민해 보고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

하는 것이다.

Q. 코로나19속에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이 있다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훨씬 더 학습 효율과 학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다면?

전공의 시절에 방문하였던 크로아티아가 매우 기억에 남는다. 우연히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하기 직전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모든 시민들이 선진국이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저와 같은 방문객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

쪽빛의 바다색과 반짝이는 주황색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 크로아티아는 보기와는 다르게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반도국가로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전쟁을 최근까지 치룬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에 대한 많은 자부심이 느껴졌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고의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최고의 의과대학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최근 교육 트렌드에 앞장서서 개편되는 교육안인 LCME 2020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과 실습에 참여하는 법에 대한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면 좀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 시설은 국내 외에서 최고이며, 더불어 인프라 및 학생과 교수진의 수준 역시 국내에서 최고의

료 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잠재력이 훌륭한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한 능동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지식을 자율적으로 연마하도록 자극을 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서울아산병원의 훌륭한 임상 치료 결과와 그에 따른 연구 실적이 그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임용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 결과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힘들었던 부분은 교육 및 연구 발표를 하는 과정이었다.

단순히 지금까지는 많은 교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연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내는데 역량을 쓸았더라면 앞으로는 어떠한 연구 방향으로 연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 교수로 교육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노하우)

업무 및 연구과정은 힘들고 고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일하는 자부심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본인이 재미를 느끼며 잘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차근차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자신을 잘 지도해 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와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Q. 기타 하고 싶은 얘기

앞으로 의과대학 교수로써 당연히 하여야 하는 진료, 교육,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특히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나의 가족을 치료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진료에서 좋은 결과가 쌓인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학생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가지게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의과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정진하겠다.



정유태 조교수
(외과학교실, 강릉아산병원)

Q. 신규임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이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주어진 자리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루하루 다짐하게 된다.

Q. 교수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강릉아산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은 서울아산병원 보다 여러 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을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곳,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Q.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얼마 전부터 천체사진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자주 하진 못하지만, 하늘이 좋고 환자들이 안정적인 주말 밤, 적도의에 망원경과 카메라를 올려놓고 별 빛이 카메라에 충분히 모일 때까지 셔터를 열어 놓고 기다리며,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시간이 정말 좋다.

Q. 환자 진료 및 임상시 기본 철학이 있다면?

주로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시간과 심리적 교류를 하는 시간을 신경 써서 할 애하고 있다.

Q. 코로나19속에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방향이 있다면?

기존에도 환자진료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더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

술기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을 활용하여 제한적인 환경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환자 진료에서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나 장소가 있다면?

몰디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낮에는 숙소에서 바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고, 밤에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과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은하수 아래에서의 와인 한잔은 정말 잊을 수 없다.

Q. 우리 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많이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의대에 속하는 만큼 지금

까지 만나본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모두 능력과 지식면에서 뛰어나고 일과 환자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느껴졌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학생들을 만나 보지 못했는데, 곧 만나볼 생각에 아주 기대가 크다.

Q. 교수 임용시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의외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평생 또는 오랫동안 몸 담고 싶은 병원을 찾는 것이었다. 이제 그런 곳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제 스스로가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제일 큰 과제가 되었다.

Q. 우리 의대 교수를 희망하고,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교수 임용 TIP(노하우)

병원에 남고자 하는 본인의 희망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때부터 본인이 바라는 의사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련 과정 기간 동안 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 한다. 본인의 미래에 확고한 중심을 잡고 환자 진료 및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21학년도 입시 주요 결과는?

우리 의대 2022학년도 입시 주요변경 내용은?

우리 의대는 전국 최고 인재들을 선발, 훌륭한 의학도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88학년도 의예과 30명, 1996학년도 이후 4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한 이후 2021학년도까지 총 34회에 걸쳐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이에 이번호에는 우리 의대의 2021학년도 입학전형 결과와 2022학년도 변경되는 주요 입시내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우리 의대 2021학년도 입학전형 결과

2021학년도 논술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함에 따라 모집인원에서 1명을 초과 선발하여 수시 31명, 정시 10명, 총 41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 2020학년도 대비…남학생, 재학생 증가

2021학년에는 남학생 27명, 여학생 14명이 최종 등록하였다. 2020학년도(남학생 24명, 여학생 16명)에 비하여 남학생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졸업년도 기준으로 최종등록자를 분석해보면 올해 재수생은 11명으로 2020학년도(20명)에 비하여 9명, 삼수 이상의 경우 8명으로 2020학년도(9명)에 비하여 1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재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11명) 대비 11명이 증가한 22명이 최종 등록하였다.

출신고교별로는 일반고/자공고는 22명, 자사고 12명, 영재학교 5명, 과학고 2명 순으로 등록하였다.

▲ 수시 학생부종합(일반,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14명 모집)에는 271명이 지원하여 19.36:1의 지원율을 기록하였고,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4명 모집)에는 70명이 지원하여 17.50:1의 지원율을 기록하였다.

▲ 수시 논술전형

총 12명을 선발하는 수시 논술전형에는 1,364명이 지원하여, 113.67:1을 기록하였다.

▲ 정시

정시(나군)의 경우 총 10명 모집에 44명이 지원하여 4.40:1의 지원율을 기록하였다.

2022학년도 의예과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의예과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기소개서 문항 변경 및 문항 수 감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문항이 축소 및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총 4개의 문항이었던 자기소개서가 공통문항 2개, 대학 자체문항 1개로 총 3개의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 추천서 폐지

전년도까지 선택 제출서류였던 추천서가 올해부터는 전면 폐지되었다.

▲ 학생부종합형 전형별 복수지원 가능

전년도까지는 학생부종합특별전형과 지역인재특별전형 간 복수지원이 불가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학생부종합특별전형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 논술전형 요소 및 반영비율

논술전형 반영비율은 논술점수 60%, 학생부 40%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전년도에는 학생부에서 교과점수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교과, 비교과(출결사항) 모두 반영될 예정이다.

▲ 수능응시영역 지정(수학)

수능에서 수학 선택 교과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정시 모집군 이동

정시 모집군이 기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였다.

2022학년도 전형요약				
구분	수시			정시
전형유형	학생부종합특별전형		논술전형	수능 위주
전형명	학생부종합특별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논술전형	일반전형
모집인원	14	4	12	10
지원자격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입학 시부터 졸업(예정) 시 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졸업(예정)자	202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202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평가방법	•1단계: 서류 100%(5배수) ※ 제출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	•2단계: 1단계(서류) 50% + 면접 50%	일괄합산 ▶ 논술 60% + 학생부(교과, 비교과) 40%	일괄합산 ▶ 수능 100% + 면접(F/P)
수능지정 응시과목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학탐구, 한국사 [과탐선택]: 과학 8과목 중 택2(서로 다른 분야의 두 조합 중 선택, 동일 분야 I+II는 인정하지 않음)			
수능최저	①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과탐(2과목 평균), 영어 중 3개 영역 합 3등급 ② 한국사 4등급 이내 *과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①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과탐(2과목 평균), 영어 4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② 한국사 4등급 이내 *과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

* 합격자 발표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사이트에 게시하며, 개별통지 하지는 않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2022학년도 전형안내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수시			정시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생부종합형		논술	정시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의과대학	의예과	40	14	4	12	10

수시모집 전형일정		
구분	학생부종합형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인터넷 원서접수	09.10.(금), 09:00 ~ 09.14.(화), 18:00	
서류제출(해당자만 제출)	09.10.(금), 09:00 ~ 09.16.(목), 18:00	
자기소개서 입력	09.10.(금), 09:00 ~ 09.16.(목), 18:00	해당 없음
1단계 합격자발표	11.19.(금), 16:00 예정	해당 없음
전형별 고사일	12.04.(토)	11.27.(토)
최종합격자 발표	12.16.(목), 16:00 예정	
최초합격자 가동록기간	12.17.(금) ~ 12.20.(월), 15:00 까지	
충원합격자발표 및 가동록기간	12.20.(월) ~ 12.28.(화), 15:00 까지	
최종등록	2022.02.09.(수) ~ 02.11.(금), 16:00 까지	

* 합격자 발표는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사이트에 게시하며, 개별통지 하지는 않는다.

정시모집 전형일정		
구분	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2021.12.30.(목) ~ 2022.01.03.(월)	
면접일자	2022.01.08.(토), 09:00 ~	
합격자 발표	2022.01.18.(화) 예정	
합격자등록	2022.02.09.(수) ~ 02.11.(금)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2022.02.14.(월) ~ 02.18.(금)	

정시모집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가'군	10	202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지정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에 응시한 자

수시모집 전형별 복수지원 가능		
학생부종합형		논술형
학생부종합특별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논술전형
전형별 복수지원 가능		

정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인 · 적성 면접	
100%	결격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	

전 세계 최초 청소년 가열담배 유병률 보고

가열담배 사용 경험 ‘남성, 고학년, 전자담배나 일반담배 사용자, 음주자’ 일수록 높아

우리 의대 가정의학교실 조홍준(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이 청소년 가열담배 유병률에 대한 첫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 한국 청소년의 가열담배 사용경험은 2.9%(남학생 4.4%, 여학생 1.2%)로 나타났다.

가열담배 사용경험자 중 81.3%는 가열담배, 일반담배,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가열담배만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조홍준 교수는 “담배제품의 중복 사용은 과거에 없던 현상으로, 중복사용자는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일반담배를 끊을 확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담배규제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열담배, 전자담배 사용…일반담배 금연 제한

가열담배 사용 경험은 남성, 학년이 높을수록, 전자담배나 일반담배 사용자, 음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담배에 대한 과거 1년간의 금연 시도는 가열담배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 보다 가열담배 사용경험이 있거나,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담배 경험자 중에서 일반담배 현재 사용자의 비는 가열담배 사용경험자나 전자담배 사용자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열담배나 전자담배 사용, 특히 가열담배와 전자담배의 동시 사용이 일반담배의 금연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홍준 교수는 “가열담배 사용이 일반담배 사용자의 금연율을 낮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가열담배 사용자의 대부분이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열담배가 일반담배를 끊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열담배가 일반담배의 금연율을 낮춘다면 일반담배 사용자가 가열담배를 사용한 후 실제 일반담배 금연이 줄었는지를 종단적으로(longitudinally) 확인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연구는 횡단면 연구(cross sectional study)이므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흡연력을 질문할 때, 담배사용 여부만을 물어서는 한계가 있고, 일반담배, 가열담배, 전자담배 사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열담

배를 사용한다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가를 질문해야 하고, 특히 두 가지 이상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에서는 금연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담배를 끊을 때는 모든 담배를 함께 끊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21년 3월 TOBACCO CONTROL(IF 6.726)에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heated tobacco product use and its relationship with attempts to quit cigarette smoking among Korean adolescents’라는 주제로 게재되었다.

국내 가열담배 연구…세계적 대응, 중요한 기여 가능

가열담배는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가 담배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홍보와 판촉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사용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열담배를 연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열담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조홍준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가열담배 사용이 급증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가열담배의 사용양상과 일반담배 금연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다”며, “가열담배 사용이 일반담배 금연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 가열담배를 일반담배와 같은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환자에게 일반담배 금연을 권고할 때 가열담배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2000년 이후 한국에 도입하기 시작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가 일반담배 금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담배제품의 중복사용이 니코틴의존도에 주는 영향과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담배(궐련)와 함께, 담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서 흡입하는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액상형 전자담배라고도 불림), 가열담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담배종류이다.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에 관련한 핵심 이슈는 유해성(기존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로운가?)과 일반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가이며, 이번 연구는 후자에 관한 것이다.



[미니인터뷰] 가정의학교실 조홍준 교수



Q. 이번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은?

공공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누가 더 좋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를 얼마나 빨리 분석해서 논문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 논문을 Tobacco Control에 투고하고 논문 리뷰가 이루어지던 중 Tobacco Control에 우리 연구와 비슷한 국내 연구자에 의해 쓰여진 논문이 이미 출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논문 내용을 확인해보니 우리 연구와 동일한 연구대상을 가지고 가열담배 사용률을 분석한 연구였다.

순간 한발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연구에 비해 연구가 너무 간단하다는 것을 알고 안 도했고, 결국 우리 연구도 같은 잡지에 출간할 수 있었다. 연구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연구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Q. 의대생들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학생시절 대표적으로 준비해야 부분이 있다면?

- ① 궁금한 게 있어야 한다. 궁금한 게 없으면 연구를 할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 ② 시야를 넓혀야 한다. 실험실 연구만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위험 요인의 분포나 행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 ③ 쉽게 얻을 수 있는 연구자료가 많이 있고, 이를 잘 알아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조사자료이다. 이 자료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이 자료를 이용한 논문도 좋은 잡지에 실리고 있다.
- ④ 넓은 분야의 독서가 필요하다. 생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문학, 역학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하면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더 다양해진다.
- ⑤ 기본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역학이나 통계학의 여러 방법론은 시험 볼 때만 사용하고 잊어버리는 수가 많다. 이런 방법론은 미리 공부하면 연구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Q. 좋은 연구에 대하여?

이런 내용을 모든 학생이 학생 시절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생 때는 연구 말고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연구가 무언지에 관해서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금함이 없으면 연구는 그저 스펙 쌓기에 불과하다. 우리 교수들도 스펙을 쌓고, 임팩트 팩터 채우느라 재미없는 연구를 많이 한다.

기부 및 후원 안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 및 후원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의대로서 자리매김 해가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후원자 분들의 기부에 가치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문의 :** 의과대학 기획총무팀 이승윤 02-3010-4214, sylee83@ulsan.ac.kr

사회적 이해 높이고, 다양한 직업 경험 기회의 장

특성화 교과과정은 학과 과정 중 일정한 시간을 대학과 병원이라는 익숙한 틀을 벗어나 다른 영역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업 경험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데에 목표가 있다.

이에 본과 4학년 과정 중 2주간 지역병원, 회사, 공공기관, 언론사, 해외 봉사 등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인의 준비와 성실성에 따라 만족도도 달라져

학생들 중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좋은 경험을 쌓고 온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고 이를 통해 본인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준비와 성실성에 따라 만족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이다.

평소에 경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 필요

한 순간에 자기가 경험하고 싶었던 내용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많은 생각과 주변 선배 동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어떤 부분을 나가서 경험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경험하고 싶은 내용이 떠오를 것이다.

이세원 교수는 “학교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한다.”며, “따라서 어느 기관, 직종에 나가고 싶은데 잘 연결이 안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최선을 다 해도될 것이다.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때에는 다른 대안도 같이 고민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 경험

졸업하여 병원으로 들어와 수련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마치 모교 병원에서 만나는 선배 및 교수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봉사, 의료기술 개발 회사, 언론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선배들이 많으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인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데에 기여하며, 본인의 인생 설계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외 기관 탐방도 어려워지고, 의료기관 방문지도 제한되었다.

이세원 교수는 “그럼에도 좋은 방문지를 찾아서 잘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칭찬하고 싶고 감사의 뜻도 전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는 것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루면 좋겠다.”며, “인생에서 다양한 멘토를 만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은 이 캠퍼스 밖에도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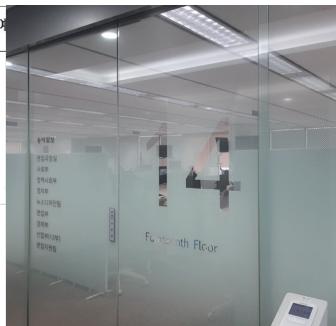
또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대학과 병원에서 교육을 받다보면 이곳이 의사 역할의 전부인 듯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사회의 많은 방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본업 외에도 본인의 재능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해야 하므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직업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8주 이상 계속되는 만성기침, 원인도

정재원 인턴기자 울산대 의대 본과 4학년,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입력 2021-02-17 03:00

위식도역류성질환·천식 등 주요 원인 찾아 치료하면 완치
끌-도라지-배즙 섭취도 도움
평소 따뜻한 물 자주 마셔야



왼쪽 정재원 학생의 기사가 게재된 내용. 오른쪽 정재원 학생이 실습에 나선 동아일보.



[미니인터뷰] 정재원(의학과 4학년)학생



1. 이번 교과과정에 대한 소감과 장단점은?

이번 교과과정은 본과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시행하는 외부 실습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교과 외 활동을 찾아 신청해 학점을 이수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의학도로서 신문사에서 인턴 기자를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지만, 한 번 할 거면 해보자는 뜻에서 언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서울 곳곳을 종횡무진하며 취재했습니다. 정부 정책 현황 발표에도 참석해 의료 관련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의견 수렴 후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각 활동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남는 것으로 보아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물론 방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방학이 3주에 불과한데, 여기에 2주 이상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빼고는 만족스러운 실습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사에서 2주간 느낀 점이 있다면?

언론에 대해 막연한 인식을 갖고 있다가 그 현실을 잠시나마 엿보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언론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새로운 형태의 매체인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목 매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보고 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방송사는 새로운 매체에 옛 방식대로 접근했고, 그 결과 젊은 세대에게는 SNS보다도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료계 집단 또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시대식 사고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조선/동아/중앙/한겨레/경향의 모든 보건/복지 관련 기사들을 요약하고 코멘트를 달아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 괜찮은 기사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기대에 차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내용을 써 놓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주관적인 의도를 애매하게 왜곡한 사실 속에 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전문가로 둔갑한 아마추어들이 진짜 전문가를 밀어내는 것은 모든 매체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전문가의 이성적인 손길이 사회 전반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이번 교과과정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물론 아쉬웠던 점 또한 있었습니다. 실습 내용적인 면에서는 의학전문기자로서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여러 기관에 취재를 다니는 것을 예상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관청에서 비대면 취재 방식을 권고하면서 무산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소에 궁금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코로나로 후배 분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던 차에, 이렇게 지면 상으로 접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지난 의대 생활을 돌아보면, 예2 때부터 초청 강의, 특히 프로그램 설명회, 각종 대회 등 학교에서 주최하는 활동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확실히 정해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봅니다.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기회를 주고자 함이지, 힘들고 귀찮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영 아니다 싶은 것을 얹기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를 다 포기하시지는 마세요. 좋은 프로그램을 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해당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열어주는 이런 활동들을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후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5. 기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첫 소식지를 받아보던 예과 1학년이 어느덧 본과 4학년의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문구를 안 좋아하는 편이지만 정말 시간만큼 빠른 것이 없다는 게 새삼스레 느껴지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내며 졸업하는 것으로 의대 생활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곧 다가올 무더위 속에서 UUCM 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 정재원 학생의 특성화 선택실습 후기 전문은 우리 의대 소식지 온라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의 변화한 취미생활

의과대학생들 3人 3色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학업에 열중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온다.

이럴 때 다시 공부할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취미생활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대생들의 취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현재, 의대생들의 취미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우리 의대 소식지 학생기자들 3인이 소개하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은 다음과 같다.

전자피아노 속에서 찾은 나만의 방구석 스튜디오 (본과 1학년 전해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느덧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아 일상의 모든 부분을 바꿔 놓았다.

많은 변화 중 각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찾아오는 무기력과 권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극복하는 데에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로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 전자 피아노, 새로운 매력 발견

악기 연주를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웃 주민들이 위아래, 옆집을 꽉꽉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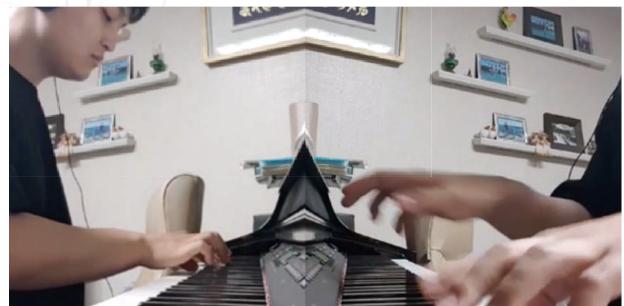
이때 눈길을 돌린 것은 전자 피아노였다. 전자피아노는 일반 업라이트 피아노와 달리 음량을 작게 조절하거나 아예 헤드셋으로 출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다.

물론 건반의 터치감은 업라이트 피아노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엔 잘 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전자피아노와 친해지면서 의외로 이런 단점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다른 재미난 측면들을 발견했다.

전자 피아노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꼽자면 바로 녹음 기능이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연주하면 출력된 소리를 그대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고, 그것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다른 세션을 연주할 수 있다.

함께 연주해줄 사람을 찾지 않아도 혼자서 2인분을 할 수 있다. 전자피아노에는 피아노 외에 기타, 현(Strings), 베이스, 드럼부터 마림바, 바순, 합창단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에 달하는 다양한 악기들이 프리셋으로 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음색으로 반주를 녹음한 뒤 그 위에서 연주하면 밴드 음악, 재즈, 연탄곡, 협주곡 등 혼자서 칠 수 없는 곡들까지 연주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작년에 이 방법을 이용해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해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사진은 오케스트라 파트, 우측은 피아노 파트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따로 찍은 뒤 한 영상으로 합친 것이다. 오케스트라 파트를 먼저 녹음한 뒤 그 위에 피아노 파트를 연주하면서 녹화했더니 제법 그럴싸한 협주곡 연주 영상을 만들 수 있다.

▲ VST로 만나는 수천만원 대 그랜드 피아노 소리

많은 이들이 전자피아노의 소리를 떠올릴 때 어딘가 어색하고, 마치 아이가 뚱뚱거리는 듯한 단조로운 음색을 떠올릴 텐데, 전자피아노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홈 레코딩의 첨단을 달리는 ‘Virtual Studio Technology’(VST) 기술이다.

이른바 ‘가상악기’라고도 하는 VST는 스튜디오에서 고급 녹음 장비로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의 소리를 그대로 샘플링한 것인데, 이를 전자피아노 건반 등 인풋에 연결한 뒤 연주하면 마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듯한 음향을 구현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아노보다 음색 자체도 훨씬 깊을 뿐 아니라, 마이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가 전혀 없는 깨끗한 음질로 녹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굳이 스튜디오를 빌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전자 키보드로 수천만원 대의 그랜드 피아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VST는 다양한 플러그인에 따라 피아노 외에도 다른 악기들의 소리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밴드음악이나, 오케스트라 등도 구현해보려고 생각 중이다. 원래 건반의 터치감 때문에 잘 손대지 않던 전자피아노는 오히려 알수록 새로운 가능성들을 선보이며, 취미생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드럼과 베이스를 이용해 재즈피아노의 반주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자피아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탐색해 나갈 생각이다.

마스크와 함께하는 러닝 (본과 2학년 정희정)

달리기를 좋아한다. 달리기라고 말하기에는 걷기와 조깅 그 사이 어디 즈음 정도라 부끄럽지만 어찌됐든 좋아한다. 두 다리를 움직일 때 마다 조금씩 변하는 풍경, 나를 지나쳐 가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귀가에 스치는 바람, 이따금씩 나타나곤 하는 새와 고양이, 물과 물과 진흙의 냄새 같은 것들. 실력이 금방 금방 는다는 점도 마음에 듈다. 그만큼 금방금방 줄기도 하지만.

▲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 ‘달리기’

예전부터 가끔씩 한강변으로 달리러 다니기는 했지만, 학교에 다닐 때는 그보다는 원내의 수영장을 애용하던 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아산스포츠센터도 폐쇄되고, 다른 실내 체육관에 가기에도 곤란해지다보니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달리기가 되고 말았다.

마침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어, 한강이 가까워진 김에 다시 러닝을 해 보기로 했다. 준비물은 별다를 건 없다. 달리기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진짜 러너들은 장비를 꼼꼼하게 챙기겠지만 나는 그냥 잘 마르는 운동복을 위아래로 입고, 운동화를 신으면 그만이다. 마지막으로 충전된 무선 이어폰까지 챙기면 준비는 끝난다.

그리고 마스크. 당연히, 요즘 시국에 마스크를 빼놓을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 마스크 착용’에 따르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한강공원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

한 번은 마스크를 벗고 달리고 싶은 마음에 새벽같이(오전 5시 경이었다) 나가보았는데 그 때도 사람이 많았다.

▲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 시중에서는 다양한 마스크가 존재하고,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사진 : 왼쪽부터 천 마스크, 덴탈 마스크, 두 가지 형태의 KF94 마스크 각각 ‘새부리형’, ‘입체형’

처음 생각하기로는 천 마스크가 가장 통기성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쓰고 달려보자, 자꾸 흘러내리는데다가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안으로 계속 마스크가 밀려들어와 호흡 면에서나 위생 면에서나 굉장히 불편했다.

덴탈 마스크 또한 부드러운 재질에 얼굴에 밀착되는 형태라 마찬가지였다. 얼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형태인 KF94 마스크는 숨 쉴 때 밀려들지는 않았지만 입체형의 경우는 입에는 달라붙었고, 새부리형은 비교적 덜 달라붙었다.

그러나 KF94는 필터 때문인지 숨이 차면 호흡 자체가 힘들어졌다. 또 지금은 여름이라 덜하지만 겨울에는 마스크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더욱 숨쉬기가 힘들기도 했다.

▲ 자전거 마스크 + 덴탈 마스크(KF AD 마스크)

마스크를 벗고 달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직은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요원한 상황. 마스크와 함께 달려야만 한다면 가장 편한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렇게 집 안을 뒤지다 찾아낸 물건.

흔히 자전거 마스크라고 부르는 물건이다. 보기보다 얇고, 탄력 있는 재질이다. 안쪽으로는 귀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이것을 먼저 끼고 그 위로 덴탈 마스크 또는 KF AD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나았다.

우선 신축성 좋은 천이 막아주니 마스크가 입안으로 밀려들어 오지 않고, 땀에 젖은 뺨이나 입술에 마스크 안쪽이 직접 닿지 않아서 위생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단점은 목이 다소 덥다는 것인데 조금 더 얇고 통기성이 좋은 재질인 제품도 있고,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스포츠 전문 브랜드 등에서 파는 운동용 마스크나 마

스크 내부에 설치하는 지지대 등의 물건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마스크와 함께 운동을 나서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관중들이 가득 찬 야구장에서 함성을 외칠 날을 그리워하며 (본과 3학년 김상영)

우리나라 제1의 프로스포츠가 야구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과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이라는 국제무대에서의 호성적을 계기로 프로야구는 현재의 위상에 이를 수 있었다.

비록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프로야구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프로스포츠는 없어 보인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 코로나19라는 범지구적 재앙이 불어닥쳤고, 프로야구도 그 영향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우선 당초 2020년 3월 28일 개막 예정이었던 2020 시즌 KBO 리그는 2020년 5월 5일로 개막이 연기되었고 개막전의 현장에 아쉽게도 관중들은 함께하지 못했다.

그러던 7월 26일 처음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8월 16일과 17일부터 다시 무관중으로 전환되었다.

다행히 10월 11일부터 관중 입장이 재개되어 시즌이 종료될 때 까지 KBO 리그는 관중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2021년, KBO 리그는 작년과는 달리 처음부터 관중 입장은 진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하지만 관중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야구장의 모습이 코로나19가 없었던 예전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우선 들어올 수 있는 관중의 수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관중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중석의 최소 10%, 최대 50%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당연히 관중들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좌석 간에도 거리두기가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야구장 ‘직관 (현장 관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육성 응원이 금지된다.

관중들은 오로지 박수나 동작만을 이용하여 응원단과 함께 응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외부 음식 반입 및 좌석 내 취식이 금지되므로 음식을 먹기 위해선 구장 내 매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뒤 복도에 마련된 전용 테이블에서만 취식이 가능하다.

나 또한 오랜 야구 팬으로서 작년과 올해 여려 차례에 걸쳐 야구장을 방문했는데 확실히 예전과는 많은 면에서 달라졌음을 느꼈다.

나 같은 경우 친구나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에 갈 때면 항상 경기를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는 했는데, 비록 취식용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단지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며 응원가를 따라 불렀던 것도 이제는 너무도 낯선 일이 되어버렸다.

물론 우리가 야구장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관중들로 가득 찬 야구장에서, 서로의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따위는 벗어 던진 채 야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 하루 빨리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코로나 전(왼쪽)과 코로나 후(오른쪽)의 야구장 풍경

책을 읽으면 의사의 꿈을 찾다



하상민(의예과 1학년) 학생

의사라는 꿈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것은 중학생 때였다.

학교에 있는 독서토론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양한 고전을 읽어 보고,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사회 문제, 윤리적 논쟁 등을 토론했다.

그때 나는 다양한 이유로 행복, 혹은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슬픔에 빠지는 원인은 갑작스러운 발병과 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병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와 환자들을 위한 삶을 산 헌신적인 의사의 이야기는 행복감을 주었다. 나는 이전부터 ‘생로병사의 비밀’, ‘명의’ 등 프로그램을 보면서 질병 및 의료 분야에 기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독서토론 활동을 통해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자는 목표를 분명히 정립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공부의 시작

이후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생물, 화학 등 의학과 깊이 연관된 과목들과 친숙해질 수 있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 교육과정 변경…어려움도 겪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입자 수를 가리키는 화학 개념인 ‘몰’(mol)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과학의 에너지 대사 개념을 배우면서 ATP 1분자가 7.3kcal의 에너지를 낸다고 오랜 시간 착각한 적도 있고, 유전 문제를 풀 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내가 선행학습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과학 II 과목이나 기하와 벡터(현 ‘기하’) 등 고학년 때의 교육과정까지 미리 살펴보고 고등학교에 온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미리 배운 것은 적지만 그만큼 더 복습을 열심히 하고 개념을 튼튼히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개념과 문제풀이를 모두 잡기는 어려웠던 나는 저학년 때에는 개념 공부에 집중하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도구와 공식은 이후에 익혀야겠다고 생각했다.

▲ 과목별로 수업 노트 작성

과목별로 수업 노트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며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개념이라면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일단 노트에 적었고, 시험 준비에 들어갔을 때만 중요한 개념들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공부했다.

차시별로 진도를 나갈 때 선행학습을 많이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숲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우선 다 기록했다가 전 범위를 한 번 이해한 다음에야 주와 부를 구분하며 공부 비중에 차이를 두었다.

▲ 시험 일주일 전

또 시험 일주일 전에는 연습장에 공부한 내용을 적어 보며, 빠뜨린 것은 없는지를 점검했다.

이 방법에는 물론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용어만 적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거의 교과서 내용의 반을 적었다). 그렇지만 막상 하다 보니 효율성이 늘었다. 교재를 보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속에 있는 내용을 적는 것이고, 확인은 나중에 책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해도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때만큼은 무거운 가방으로부터 잠시 해방됐다. 또 평소에 필기나 개념 구조화를 할 때는 글씨를 바르게 쓰는 편이지만 공부 내용 확인을 할 때는 내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었다.

▲ 시험 2일 전

마지막으로 각 과목별로 시험 2일 전에는 단원명을 백지에 쭉 적어 두고 개념들을 있는 대로 되새겨 보았다.

교과서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당연하게도 교과서와 필기노트는 가장 중요한 학습 재료가 될 수밖에 없었고, 교과서를 몇 번이고 정독하는 데 필요한 끈기를 기를 수 있었다.

학원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하여

앞서 이야기한 공부 방법은 특히 과학 과목이나 암기 과목에 주로 사용한 것들이다.

여기서는 국어와 수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

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내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 국어, 수학 학원 등록

1학년 첫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는 국어 및 수학 학원에 등록한 적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 성적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달간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학원은 학원만의 장점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스스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예시를 들자면 국어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른 작품별로 수백 개의 양질의 문제를 얻을 수 있고, 작품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학원에서 나오는 학습지를 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알았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국어독학카페에 가입하여 나의 공부 계획에 맞게 문제를 내려받고 복습할 수 있었다.

수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집을 풀면서 비록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닐지라도 각 문제가 요구하는 풀이 과정을 반복 학습한 결과 그 일련의 단계들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예습을 하고, 수업에서 다른 작품 중 어려운 고전시가에 대한 해설을 찾아보는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 수많은 정보들…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용

하지만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공부가 공교육, 사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가 아니었고, 공부를 위해 준비된 수많은 정보들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받고 풀어야 했는데, 전 범위를 여러 번 복습하는 전략, 그리고 수업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해 가는 전략을 택한 나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공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데 학원 수업이 그 계획에 자주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학원 수업을 포기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료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자료를 얻기에 어려움이 많다면 학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얻어 더 많이 복습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나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원 수업을 듣는다 해도 결국 시험은 본인이 치는 것이다. 시험을 위해 얼마나 공부할지, 문제풀이 기술을 얼마나 연마하고 활용할 것인지도 본인이 정하는 것 아닌가.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공부 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에 관한 문제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사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균형 있게 배우고 연습한다면 참 좋겠지만 내가 다닌 고등학교(특히 수능)에서의 비중은 2:0:8:0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듣기와 읽기에 모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네 영역에 모두 유용한 것을 가장 먼저 익혀야 한다.

▲ 어휘(단어)와 최소한의 문법

나는 그것이 어휘(단어)와 최소한의 문법이라고 생각한다. 단어를 안다면 어느 상황에서나 당연히 도움이 된다. 또 문법은 문장 전체의 이해에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다.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나 수능 지문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경향이 만연하다. 그러나 들어 보지 못한 이상한 문법을 이용해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첫째는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고, 한 단어나 어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찾아내는 것이 둘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량은 영어를 잘하기 위한 기본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이 이상에 몰두하더라도 시험 성적은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문을 외우더라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벅찰 것이다.

물론 학교마다 전문적인 단어나 세부적인 문법 사항 자체를 문제로 만들기도 한다. 나는 그러한 경우는 앞서 제시했던 ‘모두 필기’ 후 ‘반복 정독’, ‘개념 확인’을 거쳐서 일반적인 영어 공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

▲ 전체 문단, 전체 대화 읽어낼 수 있어야

이렇게 각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전체 문단, 전체 대화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과정이 국어 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읽다 보면 이 지문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어 지문과 가장 다른 점은, 딱딱한 비문학 지문보다는 접속어에 의한 논조의 반전과 다양한 예시, 비유 제시가 더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통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유형

이제 문제 유형이 남았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내신 문제가 수능 유형과 유사하게 출제되어 저학년 때부터 유형에 익숙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들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력평가 기출 영어 모의고사를 충분히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의 국어와 수학 모의고사는 별도로 편집된 것이 아니면 이

전 교육과정의 시험을 풀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만, 영어 모의고사에서는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 버리는 문제 없이 모든 문제에 접근해보고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후 시험 전까지 시험 범위의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때때로 수능특강 등에 있는 다른 새로운 지문을 읽으며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

활동의 넓이와 공부의 깊이,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기

1학년 공부를 마치고 나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 현실 고려 + 소망 지키기

한편으로는 2학년 때부터는 선택과목 수업이 진행되며 더욱 어려운 내용을 배우고, 수능 문제풀이 기술도 익혀야 하는 시기이기에 학업 방면으로도 부담이 느껴졌다. 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나의 소망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다.

예를 들어, 교내 대회를 운영하는 학생 사무국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동아리와 학업 등 다른 일정들과 충돌되는 것이 많았을 때, 나는 차선책으로 나의 프로그래밍 경험을 살려 메이킹(일종의 창작이자 발명) 참여자들이 전자장치인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막대한 노력이 투입되는 사무국 활동을 지양하라는 동아리 선생님의 말씀과 나의 꿈이었던 교내 대회 운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1학기를 잘 마쳤다.

▲ 상황이 달라진 2학기

2학기 때에는 상황이 더욱 달라졌다. 학생회 선거가 있는 1학기 말에 후보 학생의 제의를 받은 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선거 준비에 동참했다.

후보가 전교회장에 당선된 이후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교에 개선사항을 건의하거나 각종 축제를 준비하는 등 더욱 폭넓은 일을 이끌어가게 됐다. 이때는 동아리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 수학동아리에서는 교내축제와 교외축제(경북청소년페스티벌 부스체험활동)를 모두 준비하고, 생명과학동아리에서는 내가 관심을 가진 세포자멸사에 대해 친구와 함께 알아보면서 심화 발표를 준비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2학기 초반은 이러한 이유들로 저녁 시간의 자습에 50% 정도만 참여했던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생명과학 II를 필두로 더 어려운 과목들을 수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 효율을 최대한 높이다

나는 3주 뒤에 있는 시험을 향해 계속 달려가기 앞서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며 효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방법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니 종류가 정말 다양했고, 일관성 없게 이용하고 있었던 분야도 있었다.

나는 이러한 방법을 단순화하면서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고 그 시간에 따라 A, B, C 따위를 적어 두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들끼리 묶여 있는 내신 문제집에 적합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섞여 있는 기출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을 때에는 계속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기출문제에서 시간 측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지금까지 조금씩 길러진 시간 감각을 바탕으로 한 문제를 풀고 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었는지 점검해 등급을 표시해 두는 방식을 택했다.

같은 쪽에 있는 모든 문제가 동일한 난이도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시간을 재는 방식보다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느껴졌고, 1학년 때에 비해 나의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공부 실력이 길러졌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또 지문에 필기할 때 사용하는 화살표, 소/중/대괄호 모양, 밑줄 등을 통일성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활동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확보해야 했다.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허투루 시간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에 회의에 앞서 이야기할 사항을 분명히 정해서 시간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상 편집을 배울 때에는 학생회 임원끼리 틈틈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독학의 부담을 덜었다.

▲ 아낀 시간 공부에 투자

나는 이렇게 아낀 시간을 더욱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 독서 지문의 경우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개념을 직접 검색해보아 나의 이해도를 높였고,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미적분 수업에 적극 참여했다.

또 한편으로는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의 독서량을 크게 늘린 시기이기도 한데, 관련 수업 및 진로활동을 통해 점차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면역항암제 등 세부 분야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심화 독서 통해 의대 진학 목표 더 분명해져

시험 공부에 대한 걱정이 없는 시기에 책을 대출하여 독서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심화 독서는 의학을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키워 주었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꼭 의대에 진학하겠다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다.

중학교 때의 토론 활동 이후로 나의 목표를 더욱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이다.

목표가 분명해지자,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한눈을 팔지 않

고 매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학기 말 받아든 성적은 약간 하락하기는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느꼈다.

두 마리 토끼를 완벽히 잡는 것은 어렵다. 또 더 많은 학생들은 1학년 때 활동을 많이 하고 2, 3학년 때에는 줄여 나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내 상황에 맞는 학교생활을 설계하고, 그것을 후회 없이 해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내가 고3 때에 미련을 갖지 않고 내신과 수능의 양대 산맥에 오롯이 매진하는 기반이 됐다.

코로나19로 혼란했던 고3 생활, 나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나와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등교 개학이 두 달 가까이 연기되고, 그동안 진행됐던 원격수업에서 일어났던 불편함이나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조금 더 체계가 잘 잡혀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업 환경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기에 학생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 대형 기숙학원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수능을 다시 응시하는 졸업생 역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어려움은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학생회 행사를 축소 진행해야 했음은 물론, 대면 수업에 비해 선생님께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또 원래는 담임선생님과의 입시 상담을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지만, 학생들이 각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학습이 중요함을 새삼 느꼈다. 사교육 의존이 나쁜 만큼, 학교에서 가르쳐 준 내용만 큼만 수용하고 공부를 마치려는 태도도 좋지 않다. 지금처럼 공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스로 더 공부하기 위한 노력을 들여야만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구와 공부 계획을 공유하면서 의지를 다잡고, 수능특강을 한 차시씩 풀어 나가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내신 수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방식 그대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각 개념을 온전히 필기하고 공부하는 등 나에게 익숙한 공부 방식을 사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국면에서 겪는 부분을 낯설지 않도록 최소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고3 1학기를 마친 후, 자기소개서 작성에 매진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진정성 있게 해 온 나로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나의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느껴졌다.

비록 처음에 쓴 글은 매끄럽지 못했지만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다.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수능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기초 위에서 최저등급을 총족할 수 있었다. 이후 면접을 거쳐 실제로 입학자로 선발되었을 때에는 매우 큰 기쁨을 느꼈다.

합격수기 박경은-우수작(논술)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줄 직업을 고민하다 의사를 꿈꾸게 되다



박경은(의예과 1학년) 학생

의사를 꿈꾸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좌우명 때문이었다. 내 꿈이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의사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변하게 할 논문을 발표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순수 과학 연구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줄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줄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의사를 꿈꾸게 되었다.

'의사'라는 꿈을 꾸기 시작하다

나는 의사는 직업이 단순히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평균 수명이 매우 길어진 요즘, 건강이 이제는 수명의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의사의 역할은 사회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에서 의사를 꿈꾸며 의사의 자질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을 때 떠오르는 것은 지식과 공감이었다.

우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최대한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해부 실습에 참여하고, 생명 분야의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브라피시를 통해 약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식을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의사라는 꿈을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내가 생각한 의사의 중요한 자질은 공감 능력이었다.

환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정신적으로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의사라는 직업을 꿈꾸면서, 내가 생각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 왔고, 의대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첫 번째 발걸음...학교 졸업 후 첫 수능 공부 시작

고등학생 때는 수능과 거리가 먼 내용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교 졸업 후 처음 수능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수능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굉장히 막막했다. 수능 공부 초반에는 베이스가 없어서 문제보다는 개념에 집중한 공부를 했던 것 같다.

특히 과학 탐구 같은 경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들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등, 문제를 풀기 전에 필요한 개념들을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고자 했다.

이때 자주 활용했던 방법은 두꺼운 노트 한 권에 헷갈리는 선지나 개념들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것이었다.

또 자주 틀리거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선지들을 모두 기록해 놓은 뒤 매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 복습했다. 그리고 계속 읽고 암기하여 완벽하게 이해된 선지들은 다시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다.

이 노트는 실제로도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가 시험을 보고 직전 마지막까지 개념을 확인하는데 사용했다. 수능 공부 후반에는 문제 풀이에 집중하여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또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실전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재고 수능 연습을 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 발걸음...논술

논술의 경우,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다.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고, 최대한 학교의 문제 출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의학 논술의 경우, 생소했기 때문에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어 감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다.

논술 시험을 볼 때는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리 논술의 경우 필요한 수식들을 깔끔하게 작성했다. 불필요한 내용이나 계산 과정을 계속 서술하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나 단계들 위주로 답안을 작성했다.

의학 논술의 경우 최대한 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의학 논술에서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내 생각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다.

세 번째 발걸음...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

지금 내가 꿈꾸는 의사가 되기 위해 내가 딛고 있는 가장 마지막 발걸음은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다.

울산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이후,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하여, 의사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매주 다양한 토론 수업을 통하여,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윤리의식과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른 동기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내 꿈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 현장 실습으로 실제 병원에서 의사의 역할을 체험하고, 제가 예전에 가졌던 ‘의사’라는 추상적인 꿈을 점점 더 구체화 시켜 나가는 중이다. 울산대학교에서의 수업과 실습들은 의사로 꿈꾸는 내게 있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인 것 같다.

인턴, 레지던트 등 실제 임상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사명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며,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들에 매 순간 집중하면서 나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울산대학교에서 보내게 될 6년 동안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의사’라는 내 꿈을 당당하게 이룬 학생이 되고 싶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부터 슬럼프 극복방법까지

수험생활 중 가장 중요한 나만의 생활수칙 “밤에 핸드폰 보지 말기”



염지은(의예과 1학년) 학생

수능 시험 전날

수능 시험 전날에는 생각보다 평소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많은 양을 계획해 놓을수록 그것을 다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과 걱정이 커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계획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보려고 정리해두었던 ‘실전 행동강령 노트’를 과목별로 복습했다. 그리고 틈틈이 나만의 수능 시간표를 만들었다. 각 시험 시간 전후, 혹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내가 해야 할 것, 복습할 내용, 멘탈 관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적어 하루의 일과표를 작성했다.

나는 원래 긴장하면 잠을 잘 못 이루는 성격이라 또 잠을 못 잘 까봐 걱정도 많이 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계획의 양을 줄였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아 나는 다 공부했다. 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되새겼다. 나 자신을 믿고 조금 편하게 생각하자했던 것이 걱정을 더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수능 당일

수능 당일에는 일찍 출발해 첫 번째로 교실에 도착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는 내가 그 전날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책상, 의자 상태 확인, 화장실 다녀오기 등 미리 시험준비를 마치고, 국어 자료를 보며 마음을 차분히 하려고 노력했다. 사실 처음 몇 문제만 지나가면 떨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시험에 집중하게 된다.

그만큼 그 첫 관문이 중요함을 느꼈기에 이번 시험의 가장 큰 목표는 “떨지 말고 평소처럼 하자”였다. 계속 속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되새겼고, 내가 일과표에 써놓은 내용들을 부적삼아 읽고 또 읽었던 것 같다.

나는 원래 시험을 볼 때 간식을 잘 먹지 않고, 시험 중간에 배고프다는 생각을 안 해서 점심으로 소화되기 편한 죽을 먹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들었지만, 그날은 생각보다 밥이 잘 들어가

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선택하기도 했고, 정말 조금 먹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점심 메뉴는 사람마다 맞는게 정말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면서도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미리 생각해보고 모의고사 같은 때에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다.

수능 채점 후

사실 마지막 탐구 2교시가 끝나고 OMR 제출 직후에는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그저 “아 끝났다”는 생각으로 그 오랜 시간들의 노력이 정신없이 끝나 오히려 허무감을 느끼기도 했다. 당연히 잘봤다, 못봤다는 느낌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밖으로 나와 부모님 얼굴을 봤을 때는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 그동안 공부했던 나 자신뿐 아니라 그 생활을 함께 버티고 지켜주는 가족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9시 넘어서 채점을 했던 것 같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결과를 마주하기 두려운 것도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받아들여야.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혼자 채점을 마쳤던 기억이 난다. 그리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다.

기쁨, 뿌듯함보다는 안도감,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고, 가족들도 모두 서로 수고했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달라진 공부법

이전에는 노트 정리가 쉬운 수학, 탐구 과목만 오답노트, 개념노트를 만들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과목별 노트, 특히 국어 노트를 쓰는데에 많은 노력을 들인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책의 내용을 정리한 노트가 아니라 ‘실전 행동강령’을 모아놓은 노트를 만들어 수능장에 그 노트만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출제 포인트는 물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자주 실수하는지를 모두 정리하는 자료로 삼았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 극복 방법

내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국어였다. 시험을 다 보고 나서도 시

험을 잘 봤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던 과목이라 늘 불안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국어 공부를 할 때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답을 고르고, 그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데에 힘썼다.

영역별 학습방법을 체화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를 보며 이 방법을 실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

많은 양의 모의고사를 푸는 만큼 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문제만 간단하게 오답처리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들였다. 채점 전에는 헷갈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미리 체크하고 그것이 왜 어려웠고,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았다.

또 채점 이후에는 맞춘 문제라도 시간이 오래걸렸던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을 대상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였고,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 함정 포인트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

자신 있던 과목, 이유, 그럼에도 힘들었던 것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생명과학1이었다.

개념형 문제는 짧은 시간에 실수 없이, 퀄러 문제는 문제 유형별로 매뉴얼에 맞추어 스킬들을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난이도는 퀄러 문제가 훨씬 어렵지만 오히려 실전에서는 쉬운 문제에서 미스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스스로 연속 만점을 목표로 세우고 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킬러 문제를 모두 맞추고, 쉬운 문제까지 실수 없이 마무리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인 만큼 실전에서의 긴장감을 반복해서 맛보고 긴장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외 과목의 공부법, 극복법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내 실력에 대한 피드백이었다. 6, 9평은 자신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실전연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9평을 실제 수능처럼 생각했고, 9평 전날도 수능 전날처럼 계획하고 준비했다. 가장 리얼한 실전연습인 만큼 6, 9평 이후에는 철저하고 솔직한 자기만의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혹 점수에만 연연해하거나 다음에는 잘 보겠지 하며,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도 많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직시하기는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자신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 공부의 효율성을 찾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자신이 못 본 과목은 물론이고, 잘 본 과목이라도 시험 후에는 꼭 복기를 해보며 자신이 잘한 점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활수칙

내가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정했던 나만의 생활수칙은 밤에 핸드폰 보지 말기였다.

항상 밤에는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했다.

휴대폰을 보다보면 점점 자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늦어진 취침시간으로 인해 그 다음 날 제대로 된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알고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아예 방 밖에 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덕분에 밤 중에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그 다음 날이 피곤해지는 날을 줄일 수 있었고, 항상 일관된 생활패턴을 유지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꼭 지킬 수 있다면 공부하는 기간만이라도 친구들과의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친구와 연락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답장을 기다리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핸드폰의 다른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가끔씩 연락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신경 써야 할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굳게 마음먹고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면 공부 말고는 자신이 신경 써야 할 요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생활습관이다. 그만큼 친구와의 연락 외에도 불필요한 핸드폰 사용은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슬럼프

나는 큰 슬럼프가 오지는 않았지만,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국어 과목이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아 실망을 했던 적은 있다.

아직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평가원 모의고사 복기였다.

평가원 모의고사 때 내가 진행해갔던 사고과정들을 되짚어 보면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를 반성하고 또 성찰했다.

또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과목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래서 유독 힘들 때는 그 선생님과 주고받은 메일을 읽으며 스스로를 격려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다들 공부를 하다보면 실패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 또

합격수기

이 걱정은 다른 걱정을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걱정 되는 마음이 들 때는 이 걱정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한 점, 그리고 나를 자극할 수 있는 멘트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런 걱정을 할 시간에 더 열심히 해서 후회를 남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덕분에 걱정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었다.

그 날 상황이 어떠하든 나 자신을 믿어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 날 상황이 어떠하든 나 자신을 믿으면 된다는 말이다.

현역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처음이라는 이유로 떨리지만, 오히려 재수, N수생들은 그 시험의 무게감을 알기에 더 잘 봐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에 더 긴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OMR을 체크할 때 손을 떨거나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나오곤 한다.

수능장에 들어가면 혼자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동안 갖고 있던 불안감과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고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열심히 공부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일이 수능이다.

물론 자신의 평소 실력보다 잘 보는 것은 너무 어렵고, 자신의 평소 실력대로만 풀고 나와도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능이다.

하루의 짧은 시간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노력한 자기 자신, 달라져 있는 모습의 자기 자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자 자산이다. 모두 여러분의 성공과 인생을 응원해주고 있다. 짧은 시간동안 만이라도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럼이 남지 않도록, 후회없는 수험생활이 되도록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늘 응원하겠다.

한편 최우수작 정지영(정시), 최아인(논술) 학생의 합격수기는 5월호에 9월호에는 우수작 조주신(학종), 김민석(학종), 박재현(지역인재) 학생의 합격수기가 소개될 예정이다.

의대소식



제17대 의무부총장
송재관 교수

신임 송재관 의무부총장 취임

우리 의대 제17대 의무부총장에 송재관(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서울아산병원)교수가 지난 5월 20일 취임하였다.

송재관 신임 의무부총장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울산대 의대 학장을 역임하며, 우리 의대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의대 교수 10명 8월 31일 정년

우리 의대 교수 10명이 오는 8월 31일자로 정년을 할 예정이다.

정년식은 오는 8월 9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정년을 맞은 교수는 다음과 같다.

허환	피부과학교실, 강릉
김양호	직업환경의학교실, 울산
박성욱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서울

허주영	병리학교실, 서울
고재영	신경과학교실, 서울
김광국	신경과학교실, 서울
김창진	신경외과학교실, 서울
서대철	영상의학교실, 서울
성인영	재활의학교실, 서울
박찬정	진단검사의학교실, 서울

여름철 건강한 눈 관리 방법은?

자외선 차단 확인, 태양 피하기 중요



김유정 안과학교실
(강릉아산병원) 교수

눈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여름이 시작되었다. 폭염을 피해 바다나 워터파크 등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실내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같은 생활 환경의 변화는 자외선에 의한 안구 손상, 전염성 눈병,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선크림 눈 접촉 주의

선크림의 눈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 눈에 들어가 자극이 있을 경우 생리식염수 또는 인공눈물로 눈을 깨끗이 씻는다.

물놀이 시 눈병 예방

수영장 및 바다에서 소독액, 염분, 세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수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수영 후에는 인공눈물로 적절히 눈을 씻어내는 것이 좋다. 또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평소 다회성으로 사용하는 렌즈는 가능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면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여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좋다.

세심한 렌즈 관리 중요

여름은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세심한 관리를 요구한다. 렌즈를 만지기 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렌즈 세척액, 보존액을 오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렌즈 자체가 세균과 진균이 자라는 배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렌즈를 청결히 세척하고 보관해야 한다.

렌즈 착용 시 이물감, 충혈 등 증상이 생기면 즉시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안과로 내원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행을 떠나는 경우엔 렌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콘택트렌즈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거나 일회용 렌즈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실내에서도 인공눈물 수시 점안 효과적

여름철 에어컨이나 선풍기 앞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게 되면 눈물막 증발이 증가해 건조 증상이 악화되므로, 인공눈물을 수시로 점안하는 것이 좋다.

간혹 눈이 불편할 경우 예전에 사용하던 오래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운 여름 특히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일회용 안약의 사용을 권장한다.

모자 또는 썬 바이저 사용

선글라스 또는 고글이 첫 번째 방어선을 제공하지만 추가 보호를 위해 모자 또는 썬 바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결국 철저히 태양으로부터 눈을 가릴 필요가 있다.

충분한 수분 보충 필요

피부와 눈 모두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눈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충분한 물의 섭취가 필요하다.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 기부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휴대폰	전화(자택/직장)
	E-Mail	직장명/부서/직위
기부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후원의 집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약정내역

약정액	원(₩)	
기금 용도	<input type="checkbox"/> 일반기금	울산대학교에 기금 사용용도를 위임하는 기금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지정기금	부서 의과대학 용도: 위임(), 장학기금(), 연구기금(), 기타() 기부하고자 하는 부서와 용도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부서: 대학 전체, 대학, 전공, 연구소 등 / 용도: 장학, 지정기금, 연구, 특정 목적기금 등
	특정 부서에 지정기탁하시는 경우, 기탁금 중 10%가 일반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장학금 제외)	

■ 납부방법

□ 일시불	기부예정일	년 월 일 까지 납부			
	거래은행	<input type="checkbox"/> 경남 540-07-0174998	<input type="checkbox"/> 국민 661-01-0514-551	<input type="checkbox"/> 농협 1168-01-075861	
<input type="checkbox"/> KEB 하나 038-13-44809-1		<input type="checkbox"/> 신한 100-014-657050	예금주: 울산대학교		
□ 분할납부	□ 자동이체 (CMS)	약정금액	매월	원(₩)	
		기부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총 회)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CMS는 울산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 급여공제	약정금액	매월	원(₩)	
기부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총 회)		
이체일		15일	울산대학교 교직원만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이용목적	가 기부영수증 발급, 후원자 서비스(예우프로그램의 시행, 뉴스레터 발송 등) 제공목적 나. 후원자 초청행사 등 기타 특별 서비스 제공시 본인확인, 공지사항 전달등의 목적 다. 발전기금 출금(CMS 등)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폰), 이메일, 약정금액, 기부용도, 납부기간, 납부방법		
	선택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금 결제정보 보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불이익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에는 세액공제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울산대학교 대외협력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2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부정보 공개여부 ※ 기부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기부정보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기부(약정)자 명단(홈페이지/책자 등)	<input type="checkbox"/> 교내기사(홈페이지/책자 등)	<input type="checkbox"/> 언론보도	<input type="checkbox"/> 대학 내부 회의
-----------	--	--	-------------------------------	-----------------------------------

■ 문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Tel. (02)3010-4212
Fax. (02)3010-4240
Mail : pmk225@ulsan.ac.kr

위의 내용과 같이 울산대학교 발전기금모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인)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발전기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자동 이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과대학 장학금 :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의과대학 위임 : 의과대학 관련 기타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의과대학 연구목적기금 :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대학발전기금(법정기부)세제혜택]

■ 세제혜택 과정

기부금 납부	영수증 수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	--

■ 발전기금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공제방법 :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3,000만원 이하 : 연간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분의 25%

예) 10 만원 기부 : $10 \text{ 만원} \times 15\% = 1\text{만 } 5\text{천원}$

100 만원 기부 : $100 \text{ 만원} \times 15\% = 15\text{만원}$

4,000 만원 기부 : $3,000 \text{ 만원} \times 15\% + 1,000\text{만원} \times 25\% = 475 \text{ 만원}$

- 관련법 : 소득세법 제 34조, 소득세법 제 59조의 4

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 공제방법 : 손금인정(비용처리)

- 손금산입한도 : (연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액) × 50%

- 관련법 : 법인세법 제24조

우리 의대, ‘소통과 협업 중시’ 자기주도 교육과정 준비 중

교육인프라 구축, 운영 위한 재원 마련 절실

우리 의대는 기존의 경쟁만을 야기하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자기주도 교육과정인 LCME를 준비중이다. LCME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살릴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의료계를 선도할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특히 소통, 윤리, 창의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하여 전문지식 못지 않게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자기주도학습과 재교육 재평가를 전제로 하는 PASS/FAIL 제도를 통해 학습 성취도와 역량 강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LCME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간, 시설, 설비 등 기본 교육관련 인프라와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비용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채희동 학장은 “자기주도 교육과정인 LCME로의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간, 시설 등 교육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새로운 교육 과정에 따른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모금하고자 하니 교수님, 동문,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리 의대 2학기 대면 수업 예정

학생들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리 의대는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의대 학생들은 코로나19 백신(모더나)을 접종 받을 예정이다. 1차는 6월 28일~6월 30일, 2차는 7월 26일(월)부터 7월 28일(수)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접종대상자는 30세 미만 (예비)보건의료인 중 1분기 미접종 종사자, 신규입사자, 실습학생 등이다. 1분기 접종 대상자로 당시 접종에 미동의하여 접종받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가 원칙이다.



미션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교육
목적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 육성

교육
목표

소통 · 윤리 · 창의

